

다문화적 시각으로 세계철학지도 다시 그리기

왕진 절강대학교 철학학원 교수

세계화 시대에 사상과 문화의 다양성과 그들 서로 간에 상호 교류하고 및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이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세계화 추세가 계속 강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식민주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고 현대 기술로 표징되는 서양 문명이 곤경을 겪고 있으며 '세계 철학'은 철학 연구의 화두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카를 야스퍼스의 '축의 시대'와 막스 셸러의 '조화 시대'와 같은 구상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철학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서양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 철학을 지닌 세계철학지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고대 그리스-유럽 철학을 제외하고 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고유한 철학 유형을 가진 '철학'의 함축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철학의 관점에서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현대 철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 비교철학에서 다문화철학으로

어떻게 다원적인 철학 전통을 배치할 것인가? 다른 문화 간의 비교를 주제로 한 '비교 철학'(Comparative Philosophy)과 같은 오늘날의 철학적 담론에는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중국어 학계의 화두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철학'은 특정 문화전통과 그 철학의 중심론적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하긴 했지만, 그 한계는 주로 다른 철학과 문화전통 간의 차이 연구에 머물러 두 이질문화 간의 국부적 차이를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적 특수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중국어 환경에서 '비교 철학'은 일반적으로 탈식민주의 색채가 뚜렷한 '중국과 서양(이하 중·서로 약함)의 비교'를 말하며, 이러한 중·서 이원 비교의 틀은 실

제로 사전 설정을 통해 비교 대상의 차이를 고착화하고 강화하는데 동양과 서양, 아시아와 유럽,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등 모든 철학 논제는 이원적 비교 틀에 놓여 연구가 되며 구체적인 철학 논제의 연구는 모두 라벨이 붙게 된다. 이러한 선입지견의 프레임 사전 설정과 라벨식의 이해는 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이원 프레임에 국한되어 구체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오도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Franz Martin Wimmer, Heinz Kimmerle, R. A. Mall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은 의도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다문화 철학'(Intercultural Philosophy)으로 '비교 철학'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철학”은 철학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사업이 객관적 형태의 통일된 이념이 아니라 많은 문화세계와 사고방식이 보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는 특정 문화의 틀에 얽매어 비교 연구를 하거나 특별한 중심론의 차원에 머물러 다른 전통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철학적 전통을 전제 없이 제시하여 다문화적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장한다. 다문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관점에 대한 논증과 변호가 아니라 다양한 입장을 담은 대화가 도로 전체의 전개로서 모든 참여자가 열린 포용자세로 그 길을 통해 모여들면서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의 변천을 허용하고 대립을 방치하고 중첩된 입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며 참여자가 대화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여러 관점의 상대성을 인식하게 하고 대화 참가자의 이해와 포용을 얻어 조화로운 대화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철학은 우리에게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낯선 경험을 이해하고 일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과 동시에 특정 입장을 진리와 절대 지식으로 일반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보편적 철학적 담론을 찾으려는 시도이며, 한편으로는 대화 참여 당사자들의 차이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 형식의 평등성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인간 공동체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문화철학은 '일 자체를 향한' 이론적 시야와 방법론적 자세를 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의 다원적 철학을 제시함과 동시에 열린 세계의 틀에서 특별한 전통의 자기 이해를 형성하게 한다. 중국어 세계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문

화적 전통과 특수한 시각의 자기 포지셔닝은 복수의 타자에 비해 역사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서로 교차되고 융합되는 과정에서 자아인식과 포지셔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어 세계의 철학적 전통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의 위치를 정할 때 “세상사는 다 돌고 도는 것이다”는 중·서 이원적 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프리카, 동아시아 세계, 근동의 이슬람 지역과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 마주하여 구성된 세계철학지도 전체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들의 모든 문명과 전통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자 대화자이며 모두 중국 문화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다문화 철학의 관점에서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중국어 철학과 중국어 문화 전통이 시급히 이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2. 세계철학지도 다시 그리기: 아프리카 철학의 경우

세계화 시대의 세계철학지도는 카를 야스퍼스가 구상한 ‘세계철학사’의 틀을 더욱 확장하여 글로벌 시야 내 축의 시대의 각 문명을 모두 망라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무한히 열린 교류의 틀을 의미하며, 모든 구체적인 문화전통의 철학은 이 개방적인 틀에 수용되어 상호적인 교류와 이해를 실현하고자 한다. 철학은 본질적으로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교류와 대화의 사업이며, 그가 의지하는 언어와 텍스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사실 전적으로 유럽의 것이 아니라 아랍 문화를 통해 전달된 후에야 비로소 전해진 것처럼 항상 다문화 교류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다문화철학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다문화 교류의 성공, 즉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낯선 문화 간의 대화와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 세계의 아프리카 철학의 이해와 대화는 서로 간의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자세를 지양하는 평등한 대화와 이해이다.

세계철학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적 시야와 방법론적 자세를 확립하는 것 외에도 학술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명 전통의 철학을 대량으로 번역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적 관점에서 아프리카 철학을 중국어 철학의 시점으로 도입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내딛는 건실한 한걸음일

것이다. 중국어 철학은 그간 오랫동안 아프리카 철학, 특히 '검은 아프리카' 철학에 대한 연구를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흔히 '검은 아프리카'라고 일컫는데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이슬람 전통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비해 이 지역의 철학과 문화적 전통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은 아프리카의 철학은 세계철학지도의 유기적인 일부분이고, 또한 이에 대한 연구는 고립된 지역문화와 인류학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되며, 세계사상사의 맥락에서 아프리카 철학과 세계철학의 상호적 대화 및 다차원적 비교연구를 단서로 아프리카 철학의 의미와 의의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철학에 대한 연구는 중국 철학을 포함한 세계 철학 지평을 넓히는데 풍부한 구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철학의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철학의 '변두리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의 지도와 계몽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서구의 전통적인 철학 범주에 도전할 수 있다. 아프리카 공동체 생활의 실천 방식은 서구 및 당대 주류의 정치 관념과 실천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구술 철학과 같은 아프리카 철학의 독특한 방식은 철학 개념 자체에 대한 우리의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철학의 내포를 풍부히 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프리카 철학은 중국 철학의 전개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토종 철학의 합법성 문제에 관해 아프리카와 중국은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아프리카에 철학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는 중국어 환경에서도 그리 낯설지가 않다. 1945년 벨기에 선교사 플라시드 템펠스(Placide Tempels)가 당시 콩고 북동부에 거주하는 루바족(Luba)의 언어와 신화, 관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반투철학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아프리카 철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하며 위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템펠스는 반투어의 특별한 기호를 사용하여 루바족의 언어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였고 속담, 신화 및 전설, 부족 풍습을 아프리카 철학의 근원으로 간주하였으며 서양 철학의 범주를 사용하여 특정 아프리카 부족 철학을 구축했다. 템펠스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아프리카의 본체론 사상을 제출한 것인데 즉 루바족의 언어에서 어미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힘'의 개념을 해석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존재'라는 의미는 서구에서의 정적인 존재물이나 본질의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힘이 모이는 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반투 철학'이

제시한 '부족 철학'의 개념과 그 연구 방법은 한때 아프리카 특정 부족의 언어, 신화, 속담, 관습 등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통해 서구 철학의 범주를 적용하여 아프리카 고유의 철학적 내용을 추출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알렉시스 카가메(Alexis Kagame), 존 음비티(John S. Mbiti)와 오데라 오루카(Odera Orika) 등 학자들은 템펠스 보다 더 광범위한 연구 샘플을 사용했으며 더 많은 루바족의 언어 형태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키쿠유족과 루오족의 언어를 분석하고 해석했다. 그중 음비티와 오루카는 연구에서 아프리카인의 시간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놓은 긍정적인 답변은 그후 아프리카 반식민지 운동의 배경에 대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템펠스 자신의 선교사 신분이 선교의 실천적 동기와 유럽중심주의 성향을 만들어 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부족의 언어와 관습에서 추출해 해석한 관념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흥동기는 '부족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대 아프리카 학자들이 철학을 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아프리카 철학'의 등장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인 층면에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생활 경험과 서양 철학 범주를 리벳 연결시킨 연구가 합법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실천적 층면에서는 아프리카의 일부 관념과 생활 조직 방식이 실제로 서양의 주류 관념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를 비롯한 많은 아프리카 철학자들은 아프리카 전통적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의 민주적 형태를 매우 중시하는데 이러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현대 서양의 민주주의와 확연히 다르다. 현대 서방 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은 다수결 원칙이며, 소수가 다수의 의지에 따르는 것인데 아프리카 민주주의에서는 광범위한 컨센서스의 원칙이 핵심으로 간주된다.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은 긴 토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합의에 성공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협상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 공동체에서 음봉지(Mbongi)라고 불리는 협상 대화의 형태이다. 에르네스트 뎀바 디아 뎀바(Ernest Wambadia Wamba)는 이러한 대화 형식을 서양 민주에서의 의회 토론과 대응하는 아프리카 형식으로 간주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이 대화는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등하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 아프

리카 민주주의 이러한 협상 형태는 정치를 단순한 표의 수로 환원하는 것을 반대하므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투표 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 '엘리트'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들도 협의에 참여하여 정치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규정한다. 아프리카의 특유의 민주적 형태 외에도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에 기반한 아프리카 공동체 구축, '흑인성'개념, 아프리카 통일 운동 등은 공동체 개념과 공동체 자치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의 반식민주의와 반자본주의 세계화 투쟁에 이론적 무기를 제공해주었다.

아프리카 철학이 세계 철학 지도에 포함될 때 이는 '철학' 개념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확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확대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족철학에 기반한 연구방법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철학 연구의 상당 부분이 각 부족의 속담과 신화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글이 아닌 구술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의 방식은 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서양 및 동양 철학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며 이는 "철학은 반드시 문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어체 방식으로도 전해질 수 있는 것인지"라는 '철학' 자체에 대해 장력이 넘치는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아프리카 철학은 서양 전통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철학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오데라 오루카(Odera Oruka), 제럴드 반유하이(Gerald J. Wanjohi)와 모리스 차말랑가 툼바(Maurice Tschia malenga Ntumba) 등 학자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래된 속담과 일부 부족 현자의 격언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의 '현자 철학' 전통을 설명해 냈다. '현자 철학'은 구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구술의 특징은 문헌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 및 동양 전통의 철학과 크게 다르며 기존의 철학적 패턴을 타파했다. 구술 형식은 비록 한편으로는 사상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할 가능성이 없어 삶의 지혜가 복잡한 관념 체계로 진화되지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술 형식으로 교류하고 계승된 철학은 세대 간의 친밀한 생활 연결에 의존하여 부족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전반적인 실천적 특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해의 상황성과 총체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그 독특한 장점을 살렸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필기 특성이 더 이상 철학 활동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데리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술과 필기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원초적인 것이며 '철학'의 내포는 '구술 철학'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되었고 확장되었다.

우리는 세계 사상 판도의 구성 요소인 아프리카 사상의 전통에 주목하며 현자 철학, 부족 철학 및 구술 철학과 같은 이러한 연구는 반대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부족 철학과 철학의 보편성과의 관계, 문헌을 기반으로 철학과 구술을 기반으로 한 철학 간의 관계, 나아가 세계적 범위 내의 '철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등 전통 철학의 범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프리카 철학 연구에는 아프리카 철학의 관점에서 시대적 특성을 지닌 아프리카 사상에 대한 고찰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철학의 전통과 기독교의 관계, 아프리카 각국의 식민지 반대 및 민족 독립 투쟁에서 나타난 마르크스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의 정치철학, 아프리카의 식민 역사와 당대 정치철학 개념의 심층적인 관계, 철학과 아프리카의 전통 언어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계 흑인 철학자들이 피부색과 인종 문제에 대해 수행한 철학적 사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철학 의제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중국과 서양 철학의 내포를 더할 나위 없이 풍부하게 하고 세계 철학 지도의 전모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세계화시대의 세계철학과 그 보편성

따라서 다문화 철학의 관점에서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철학과 그 보편성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중국과 서양을 제외한 모든 '변연성' 철학 전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철학의 보편성은 어떤 독특한 철학적 전통에 의해 독점되어 특정 중심론을 해석하는 존재가 되어 세계의 다른 철학과 사상적 전통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늘날의 다원적 세계 철학에 포함된 '보편성'은 구체적인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정해진 내용이 없는 틀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며 총체적으로 보편적인 대화와 교류의 사건이지 객관적인 형태를 가진 초역사적인 통일 이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쿠바 철학자 라울 포넷-베탕쿠르(Raúl Fornet-Betancourt)가 지적했듯이 철학적 보편성은 일

종의 지향적인 계획으로 나타나며, 이 계획은 결국 '다양한 현실성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문화 철학의 관점에서 세계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오늘날의 심층 세계화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표층적 세계화'가 세계화를 과학기술, 경제, 교통, 대중문화 등을 통해 동질적인 세계공동체와 전 세계적으로 동질적인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다른 문화의 차이를 평준화하는 일방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면, '심층적 세계화'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층적인 문화적 융합과 대립을 가리키며, 세계화의 표면적인 일치는 더 심층적인 층면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 신앙 형태 및 삶의 의미 간의 상호 융합, 상호 침투 및 상충을 초래하게 된다. 유례없는 이 광범위한 문화적 융합과 갈등 과정에는 다양한 문화적 출처의 철학적 입장의 만남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다문화 철학과 대화도 전개된다. 축의 시대와 비슷한 이러한 구상은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세계 철학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반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철학지도는 중심-변두리의 전통지식과 관념의 틀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다원철학이 보편적으로 교류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관념과 철학의 전통이 내부에서 그리고 상호 간에 기승전결하고 상호 작용하여 구성된 복잡하고 균형 잡힌 총체적인 관념사이다. 세계철학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문화적 다원주의와 인류운명공동체의 이념을 견지하여 서로 다른 문화전통과 다원적 철학을 수용하는 공공공간을 열고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 간의 전반적, 국부적 연관성을 강조해 인도주의, 관용, 다원성 등 중첩된 합의와 전 인류 공통의 가치를 찾는 작업이다. 세계철학지도에 포함된 구체적인 철학활동은 특정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특정 문화전통의 보편적인 진리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길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철학의 여러 타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세계적 경계와 유한성을 파악하여 모든 철학적 전통의 독립적인 가치와 다양한 인간 집단의 문화적 창조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적한 자기 이해와 자기 위치를 형성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 철학은 추상적 배타성을 고착화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통일성을 구현해야 한다.

다문화 철학의 시각에서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중국 학계에 있어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철학 연구의 시각에서 변두리 지역 철학 연구에 대한 관심은 중국 학계의 큰 공백을 메우고 중국어 철학 연구에 많은 새로운 사상 자료를 제공해주어 중국 학계의 세계 철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어 문화의 시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둘째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동남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사상 전통 연구는 지역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타자를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자기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 철학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은 중국 사상 전통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세계화 상황에 직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